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11. 3.(화)

한국수자원공사, UN이 인정하는 ESG 선도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

- 2년 연속 공공기관 유일 UNGC LEAD(리드) 기업에 선정
- UNGC 한국협회 회원사 355개사 대표해 ESG 가치 확산 선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11월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된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최 '2026 Korea Leaders Summit'에서 'LEAD(리드) 기업'에 선정됐다.

UNGC는 UN에서 2000년에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 10대 원칙 준수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NGC의 LEAD 기업은 355개 국내 회원사 중 ESG 및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고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상위 10개 기업에만 부여되는 지위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년 연속으로 공공부문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LEAD 기업 선정에 따라, ESG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UNGC 국내 회원사를 대상으로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ESG 관련 국내외 동향과 규제 등에 대한 전략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실무그룹에 참가해 회원사의 글로벌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7년 UNGC 가입 이후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윤리·인권경영 정책 시행, 기후위기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SDGs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특히, 올해는 ‘세계 최고 수준의 ESG 혁신경영 구현’을 전사적인 경영 방향으로 설정하여 지속가능경영 고도화에 노력해 왔다. 국내 최초로 글로벌 RE100을 달성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이루었다.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은 “이번 UNGC의 LEAD 기업 선정은 한국수자원공사의 ESG 이행이 글로벌 기준과 부합하는 보편적 가치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라며, “친환경 물에너지 확대, 협력사 ESG 지원사업, 책임 있는 AI 사용 등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ESG 선도모델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1매(별첨). 끝.

담당 부서	경영혁신실 ESG혁신부	책임자	부 장	한지만 (042-629-2401)
		담당자	차 장	이용만 (042-629-240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2026년 11월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된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최 '2026 Korea Leaders Summit'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LEAD(리드) 기업'에 선정되며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사진 가운데 오른쪽)이 이태식 UNGC 한국협회 회장으로부터 위촉패를 받고 있다.